

# 호랑이 연봉 '타고투저'... 서동욱·김주형·이흥구 '억대'



**김광수·고효준·한기주·한승혁 등 투수들은 미계약**  
구단 '10% 인상' 전체 분배 초점... 선수들 기대 못미쳐

극심했던 '타고투저'의 바람이 비시즌에도 영향을 미쳤다. KIA 타이거즈의 연봉협상 추이도 '타고투저'다. 일단 이번 연봉협상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기대했던 훈풍은 볼지 않겠다는 평가다. 선수들과 구단의 눈높이가 확연하게 달랐다. 올 시즌 KIA는 5년 만에 가을잔치에 성공하면서 뜨거운 분위기에서 시즌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화끈했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선수들의 수익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KBO는 와일드카드 제도를 도입하면서 포스트시즌 수입금 분배에서 와일드카드 배당금은 제외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탈락한 KIA는 '가을잔치'는 했지만 포스트 시즌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수익 면에서는 실속은 없던 잔치였던 셈이다. 구단 입장에서도 선수들에게 면목없는 가을잔치였다. 선수들의 눈높이를 높인 또 하나는 연봉 총액 증가다. 정규시즌 순위 상승으로 KIA는 연봉 총액이 10% 가량 증가한 상태에서 연봉 협상태이블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라운드 전면에 나서었던 선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KIA가 '100억 장벽'을 깨는 등 FA시장의 큰 손으로 활약을 한 터라 내부 선수들의 기대치와

현실과의 차이가 있었다. 이번 연봉 협상은 '타고투저'로도 표현할 수 있다. 지난 시즌 프로야구계는 타자들이 득세했다. 당연히 연봉 고과도 야수들 쪽에 무게가 더 실렸다. 이런 분위기 속 '깜짝 활약'을 하며 타선을 이끈 서동욱(사진)과 김주형, 가장 많은 시간 안방을 지킨 이흥구 등이 데뷔 후 처음으로 억대 연봉자 대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야수 쪽에 고과 무게가 쏠리면서 투수 쪽 협상은 더디게 진행됐다. 해를 넘기면서 어렵게 계약에 이른 경우도 있지만 아직 김광수, 고효준, 한기주, 한승혁 등 불펜진이 미계약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삭감 대상자인 한기

주는 필리핀에서 개인훈련을 하고 있어서 계약 완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성적의 아닌 경기 결과는 물론 볼카운트별 결과, 타구 상황 등 500여 가지로 세분화된 연봉 고과 평가 방식을 놓고도 양측의 반응이 다르다. 연봉 협상이라는 과제를 다 풀지는 못했지만 미계약자들과 구단은 이와 상관없이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다. 도장을 찍지 못한 김광수와 한승혁은 주말이었던 7일에도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몸만들기에 집중했다. 구단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선수들과 이번 주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하는 등 2017시즌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타고투저' 바람 속에 진행된 KIA의 연봉협상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IBSF 월드컵 3차 대회 나란히 5위



### 봅슬레이 원윤종-서영우

봅슬레이의 원윤종(32)-서영우(26)가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3차 대회에서 5위를 차지했다. 원윤종-서영우 조는 지난 7일(한국 시간)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린 2016~2017시즌 IBSF 월드컵 3차 대회에서 1, 2차 합계 1분49초99의 기록으로 5위에 올랐다. 금메달은 1분49초20의 독일 팀, 은메달은 1분49초84의 러시아 팀, 동메달은 1분49초90의 라트비아 팀에 돌아갔다. 최근 기량이 급성장해 기대를 모은 김동현-전정린 조는 1분50초49로 12위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금메달을 목에 건 독일의 프리드리히-그로스코프 조는 1차 시기에서 54초48을 기록, 10년 만의 트랙 신기록을 작성했다. 프리드리히-그로스코프 조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원윤종-서영우 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원윤종-서영우 조는 지난해 연말 캐나다와 미국에서 열린 1, 2차 대회에서는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 선수들은 이날 경기 전후 지난해 이맘 때 지방으로 숨진 고(故) 맬컴 로이드(영국) 코치를 추모했다. /연합뉴스

# “평창아 기다려” 차준환 ‘마의 80점대’ 돌파

전국 피겨선수권 238.07점 우승...세계주니어 선수권 출전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휘문중)이 4회전 점프를 실전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차준환은 8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제71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겸 2017 세계(주니어) 선수권 파견선수권 대회 남자부 싱글 1그룹 프리스케이팅에서 156.24점을 받았다. 그는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81.83점)를 합쳐 총점 238.07점으로 2위 김진서(한체대), 3위 이시형(판곡고)을 누르고 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차준환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3월 대만에서 열리는 세계 주니어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날 쿼드러플(4회전) 토티프를 실전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성공하기도 했다. '영화 일 포스티노의 OST'에 맞춰 연기를 한 그는 첫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티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했다. 이후 '필살기'인 쿼드러플 살코를 클린으로 처리하며 기본 점수 10.50점에 가산점(GOE) 1.29점을 추가했다. 차준환은 곧바로 트리플 악셀을 시도했는데 언더로테이션(under rotated) 점프의 회전수가 90도 이상 180도 이하로 모자를 경우)처리되며 감점 0.57점을 받았다. 이어진 플라이 카멜 스피는 레벨 3, 체인지 풋 스피는 레벨 4로 무리 없이 해냈다. 차준환은 숨을 고른 뒤 후반부 연기에 나섰다. 그는 트리플 악셀-더블 토티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클린 처리한 뒤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을 차례대로 연기했다. 순조롭게 연기하던 차준환은 트리플 플립-싱글 루프-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를 수행하다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며 감점 2.10점을 기록했다. 차준환은 이어 스텝 시퀀스(레벨3)와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루프를 깔끔하게 해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인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는 레벨 4로 처리하며 연기를 마무리했다. 강릉아이스아레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공식 경기장이다. 차준환은 1년 뒤 이곳에서 남자 피겨스케이팅 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피겨스케이팅 대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남자 세계 공인 최고 기록은 일본의 하뉴 유히루가 2015년 12월 바르셀로나 그랑프리 결승에서 기록한 330.43점이다. 여자 세계 공인 최고 기록은 김연아(은퇴·228.56점)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세웠다. 한국 남자 비공식 최고 점수는 차준환이 작년 10월 2016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서 받은 242.44점이다. 국내 남자 선수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공인 최고 점수도 차준환이 갖고 있다. 작년 9월 일본 요코하마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받은 239.47점이 최고 점수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휘문고)이 8일 오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제71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겸 2017 세계(주니어) 선수권 파견선수권 대회 남자부 싱글 1그룹 프리프로그램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성빈 “경험 부족”

윤성빈(23·한국체대)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3차 대회에서 5위에 올랐다. 윤성빈은 지난 7일(한국 시간)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린 2016~2017시즌 IBSF 월드컵 3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53초26의 기록으로 5위를 차지했다. 금메달은 독일의 크리스토퍼 그로티어(1분52초30), 은메달은 라트비아의 마르틴스 두쿠르스(1분52초60), 동메달은 독일의 악셀 용크(1분52초77)에게 돌아갔다. 윤성빈은 지난해 연말 캐나다와 미국에서 열린 1, 2차 대회에서는 각각 금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독일로 출국하기에 앞서 “유럽 트랙은 아무래도 북아메리카보다 경험이 부족해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 2차 대회보다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트랙 신기록이 무려 3차례나 나왔다. 1차 시기에서 그로티어가 56초20의 신기록을 세웠다. 불과 1시간여 뒤 열린 2차 시기에서 두쿠르스가 56초18로 기록을 경신했고, 곧바로 그로티어가 56초10의 새 기록을 작성했다. /연합뉴스